

“새 성장동력 기회…공정 성장 문 열어야”

李대통령, 국회 첫 시정연설

“양극화·불평등 완화…모두 잘 사는 세상”

“자본시장 정상화 코스피 5,000시대 가능”

“첨단산업 투자…재생에너지 전환도 속도”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국회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고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 성장’의 문을 열어야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고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4면

특히 그동안 보수 진영이 주도권을 쥐고 있던 어젠다인 ‘성장’을 강조하는 동시에, ‘공정’이라는 개념을 융합시켜 진보진영이 주장해 온 양극화·불평등 완화를 달성하겠다는 지향점을 밝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 정상화 방향에 대해서도 “투명성과 공정성을 회복해야 한다”며 “기업도 제대로 성장·발전하는 선순환으로 코스피 5,000시대를 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연설 내내 ‘공정’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새로운 나라,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은 대통령 혼자 할 수 없다. 규칙을 어겨 이익을 볼 수 없고 규칙을 지켜 손해 보지 않는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일은 모두의 협력 없이

이룰 수 없다”며 “공정하게 노력해 일궈낸 정당한 성공에 박수를 보내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면서 이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협조를 부탁드립니다”며 “예측 가능하고 합리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 최소한의 합의를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기득권과 특권, 새치기와 편법으로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라 공정의 토대 위에 모두가 질서를 지키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새로운 사회로 변화하는 과정은 고통을 수반하지만 검불을 견어내야 씨를 뿌릴 수 있다”며 “하나 된 힘으로 숏한 국난을 극복해 온 위대한 우리 대한국민의 자력이라면 어떤 어

려움도 능히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작은 차이를 인정하고 포용하면 새롭게 출발할 수 있다”며 “짧은 기간이지만 이미 많은 것들이 회복되고 정상화되고 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자”고 독려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 육성 정책과 관련해서도 보수·진보 진영이 각각 주도해온 담론인 첨단산업 투자와 재생에너지 전환을 동시에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반도체 등 첨단기술 산업에 대대적으로 투자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전환을 조속히 완료해 기후 위기와 RE100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바이오산업과 제조업 혁신, 문화산업 육성에도 힘을 기울여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면서 “오직 실용 정신에 입각해 국민의 삶을 살피고 경기 회복과 경제 성장의 길을 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 안보 분야 정책에 있어서도 “진보나 보수나가 아니라 국익이나 아니냐가 유일한 선택 기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외교에는 색깔이 없다”며 “국익 중심 실용외교로 통상과 공급망 문제를 비롯한 국제 질서 변화에 슬기롭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는 일도 더없이 중요하다”며 “평화가 밥이고 경제다. 평화가 경제 성장을 이끌고, 경제가 다시 평화를 강화하는 선순환으로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강위원 전남도 경제부지사기 26일 취임 후 첫 현장 방문 일정으로 광양만권 울촌산단 소재 철강·이차전지 기업을 찾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응 전략을 모색했다. <전남도 제공>

울촌산단 철강·이차전지 기업 애로 청취

강위원 경제부지사, 첫 산업현장 방문

릴레이 민생살핌 행보…대응전략 모색

강위원 전남도 경제부지사가 취임 후 처음으로 산업 현장을 찾아 위기 상황 대응 전략을 모색했다.

강 부지사는 26일 ㈜세아제강과 포스코필라리리튬솔루션 등 광양만권 울촌산단의 철강·이차전지 핵심 기업을 방문,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릴레이 민생 살핌행보를 시작했다.

릴레이 민생 살핌행보는 강 부지사가 산업현장을 직접 찾아가 소통하는 ‘직면의 리더십’을 통해 위기 상황을 풀어가기 위한 것이다. 보고서보다 현장을 중시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강 부지사는 이날 취임 후 첫 민생 살핌행보로 철강·이차전지 기업을 방문해 ▲철강산업 글로벌 수요 둔화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 ▲중국산 저가제 수입 ▲이차전지 소재의 가격 경쟁력 하락 등 복합적인 산업위기 상황에서 현장과의 직접 소통을 통해 대응 전략을 모색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철강기업들은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원가 부담, 수출국 보호무역주의, AI 기반 스마트 제조 전환 필요성 등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강위원 부지사는 ‘철강산업 대전환 메가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저탄소 설비 전환, 스마트 제조체계 구축,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연구개발(R&D) 역량 강화 등을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며 “국가기간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으로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정 기자

▶1면 ‘민선 8기 4년차…’서 계속

미래 첨단산업의 글로벌경쟁 생태계를 조성해 ‘벤처 창업하기 좋은 전남’을 만들고 전남의 고유한 콘텐츠를 기반으로 ‘K-컬처 미래 트랜드를 창출하는 전남’ 구축에도 속도를 낸다.

‘어디서든 1시간대 전남’을 구축하겠다는 목표도 내놔다. 전라선 고속화, 서해안철도, 우주고속도로, 경전선, 전남형 트램 등 서남권

과 동부권을 아우르는 광역 교통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광주 민간·군공합 통합 이전은 이재명 대통령 약속 대로 중앙부처와 전남도·광주시·무안군이 함께 대통령실 산하에 범정부 TF를 구성, 정부 차원의 획기적 국가 지원 방안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곡성과 영광에서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햇빛·바람 연금 등 에너지 기본소득과 전

남만의 지속가능한 자주자원을 마련해 전남형 기본소득을 확대한다. 조부모 돌봄, 24시간 어린이집 운영, 통합돌봄 서비스 확대 등 전 생애주기 복지체계를 실현할 방침이다.

김영록 지사는 “전남을 기본소득 선도지역으로 만들 것”이라며 “도민의 꿈이 현실이 되고 도민의 행복이 전남의 기쁨이 되는, 세계 무대에서 빛나는 ‘더 크고 위대한 전남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헌재소장 김상환·헌법재판관 오영준 지명

국세청장엔 임광현 민주당 의원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헌법재판관 겸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김상환 전 대법관을 지명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인선을 발표했다.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명 중 나머지 한자리 후보자로는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강비서실장은 김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해 “헌법재판연구관과 대법관을 역임한 법관 출신으로 헌법과 법률이론에 해박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며 “우리 사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헌법 해석의 통찰력을 더해줄 적임자”라고 밝혔다.

오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대법원 재판 연구관 등을 역임한 판사로 법원 내에서도



손꼽히는 탁월한 법관”이라며 “헌재의 판단에 깊이를 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 4월 퇴임한 문형배·이미선 전 헌법재판관의 후임이다.

이 대통령은 또 국세청장 후보자로는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발탁했다. 국세청장은 차관급이지만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최종 임명되면 헌직 의원이 국세청장이 되는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김진수 기자

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2%…2주 만에 9%p 상승

국정 신뢰도 63%…민주 45%·국힘 20%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이 2주 만에 9%p 상승해 60%를 넘어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6일 나왔다.

엠베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3~25일 만 18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 대통령이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잘하고 있다’는 답변은 62%로 집계됐다. ‘잘못하고 있다’는 답변은 21%로 나타났다. 이는 이 대통령 취임 직후이자 2주 전에 실시된 직전 조사(6월9~11일) 대비 9%p 상승한 수치다.

정당 지지율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도가 45%, 국민의힘 지지도는 20%로 집계됐다.

양당을 제외한 정당의 지지도는 개혁신당 5%, 조국혁신당 4%, 진보당 1% 순이었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18.3%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연합뉴스

정 평가가 9%p, 부정 평가가 2%p 각각 상승한 수치다. 국정 운영 신뢰도에 대한 질문에는 ‘신뢰한다’는 응답이 63%,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9%로 각각 조사됐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도가 45%, 국민의힘 지지도는 20%로 집계됐다.

양당을 제외한 정당의 지지도는 개혁신당 5%, 조국혁신당 4%, 진보당 1% 순이었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18.3%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연합뉴스

◀ **광주매일신문**

“좋은 生活사람받는 廣告인네”

가장 알뜰하게
최고의 만족을 드리는 광주 매일신문 廣告.
사랑받는 廣告로 마음과 마음의 만남을
소중하게 이어 드리겠습니다.

광고문의 및 출장접수
▶광고국/☎ 650-2099
650-2071~2
F. 650-2016
▶시내지국 및 각 지방지사

구독신청
배달사고

문의
650-2022

부실채권 전문가와 상의하면 길이 보입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가 함께 합니다

외상대금
공사대금
장비대금
전세금
부도어음

돈
받아드립니다

빌려준돈
투자금
약정금
임대료
구상금

선수금, 조사비 받는 회사가 좋을까요?
돈도 못 받고 있는데...
당사는 선수금 조사비가 없습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 특수채권팀은
호남지역은 물론 전국을 무대로 그동안 쌓인
다양한 노하우와 뛰어난 정보력, 성실함으로 회수가 힘든
채권, 법인채권, 상거래채권 등을 위임받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신속한 채권회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못 받은 돈 때문에 고민 하십니까?
지금 연락 주세요!! ★
062)719-3380, 010-8678-4638

광주역앞 중흥6거리코너(중흥동712-14외2)
대형빌딩 상업지628평 지하4층지상10층
건평344평 연건평3,778평 승강기3대 주차150대
급매220억(조정가능)
공공기관,의료시설,쇼핑센터등
무슨 업종이든 좋은 위치입니다.

급히구합니다 = 조건맞으면 바로 계약합니다

상가빌딩, 상가주택, 모텔, 가든, 나대지
야생장, 창고부지, 물류센터부지 등등 찾고있습니다.

[급매전문] 즐거운공인중개사무소
대표공인중개사대표 유재관 010-6495-3787
광주 북구 임동480 LH주공아파트 옆 동운고가임구
등록번호 북구29170-2019-00097

CMYK